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찬양채플, 비전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비전센터09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센터09호)
- 한어중고등부(CIM) / 찬양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크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주 예수 이름 높이어(찬37장/새37장)
-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다무라고조 장로 2부/김종학 집사 3부/김진원 집사 4부/변은재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찬양하네 빛이 되신 구주(Hal H. Hopson 편곡)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호세아(Hos.) 3:1-5..... Altogether **다같이**
4부/에베소서(Eph.) 5:21-33
- 말씀 Message 1, 2, 3부.....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L AFC(4) 음녀의 경매가격 vs. 은혜의 가격

4부 Rev. Solomon Kang **강솔로몬 목사**
여백의 미

-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찬404/새304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찬502/새445장)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여전히 Jesus Alone
- *축도 Benediction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섬티아고

Sumtiago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그리스의 아름다운 섬 산티아고가 있습니다. 파란 지붕에 하얀 건물이 인상적이지요. 이번 한국선교 140주년을 맞이하여 다녀온 순례길에 섬티아고가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의 소악도에 문준경 전도사를 기리며 만들어 놓은 12개의 기념 건물을 돌아보는 길로서 12사도의 순례길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이 12사도의 이름으로 하나씩 만들어 약 4-5마일 길에 띄엄띄엄 세워졌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의 이름이 생소한 분도 있겠지만, 증도라는 섬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의 전도로 증도는 거의 99%의 주민이 교회를 다니는 섬이 되었습니다. 약 2000명의 주민이 사는데, 교회가 11개나 있습니다. 이 작은 섬에서 문준경 전도사님의 전도를 받아 한국 기독교에 위대한 인물이 된 대표적인 인물들이 한국 CCC 창시자 김준근 목사님과 성결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한 이만신 목사님이십니다. 참으로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문준경 전도사님은 이미 다른 여자가 있는 남편에게 시집을 오면서 극심한 좌절을 느낍니다. 그러나, 시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한글을 깨우치고, 서른 넘어 신학을 공부하여 교회를 개척하기에 이릅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며, 공산주의자들의 박해가 심해진 상황에서 결국 끌려가다가 서울이 수복되었지만, 증도의 성도들은 계속 아직 달아나지 못한 공산당에 의해 곤욕을 치르는데 문준경 전도사는 섬마을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 증도로 돌아와 자기를 죽이고, 성도들을 놓아달라 애걸하여 문준경 전도사만 순교당하고, 모든 성도들은 풀려 났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의 빛나는 본보기가 된 문준경 전도사님의 생애를 기리며, 만든 것이 섬티아고 순례길입니다. 여론은 특정 종교에 편향된 이런 순례길을 만든 것을 반대하여, 12사도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바꿨다가, 다시 증도 기독교인들이 헌금하여, 사도들의 이름을 회복시켰다고 합니다.

140년의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이곳저곳에 남아 있는 기념관들, 박물관들, 그리고 순례의 길들을 돌아보면서, 한국을 특별히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많은 것들을 보존하지 못하고 역사의 뒷안길에 잃어 버린 것들이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소중한 간직된 유물들을 통해 신앙을 전수해 주신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한없는 감사가 나옵니다. 여행 가이드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은 3대 가족이 신앙전수를 목적으로 이런 투어를 일부러 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곧 반세기를 맞이하면서, 이런 기념비적인 은혜의 역사가 대를 이어 3대가 함께 디아스포라 교회의 신앙을 지켜가는 기념비적인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There is a beautiful island of Santiago in Greece. Blue roof on white buildings is quite impressive. There was Sumtiago on our pilgrimage trip this year, marking the 140th anniversary of missions in Korea. There are 12 memorial buildings in memory of Evangelist Joonkyung Moon in South Jolla province. The route leading to these memorial buildings is sometimes called Pilgrimage of 12 Disciples. World renown artists designed them, each with a disciple's name. They are built every 4-5 miles from each other.

Some of you may not be familiar with Evangelist Joonkyung Moon. She is legendary on the island of Jeung-do. Through Joonkyung Moon's evangelism, 99% of people living on Jeung-do island attend church. The population is only about 2000, but there are 11 churches. Two of the people who converted through Joonkyung Moon's evangelism are Rev. Joon-gon Kim, the founder of CCC, and Rev. Man-sin Lee who served as the president of general assembly of the Christian Holiness Church. Evangelist Joonkyung Moon, who lived a miserable life, married her husband who already had another woman. She was extremely frustrated. However, she was loved by her parents in-law and learned to read Korean. She went to seminary well into her thirties, and began to plant churches. Korean war broke out in 1950. Persecution of communists intensified, but in the end, Seoul was recaptured. However, believers in Jeung-do suffered humiliation at the hands of the communists who had yet to flee. Evangelist Joonkyung returned to Jeung-do to save the believers by pleading with the communists to set the people of island free and take her instead. All believers were released and only Evangelist Joongkyung Moon was martyred. Remembering the life of Evangelist Joongkyung Moon, who became a shining example in Korean church, this pilgrimage route called Sumtiago was made. Because public opinion was against the creation of such a pilgrimage route that is biased toward a particular religion, the name of the route changed from the original 12 disciples' names. However, Jeung-do Christians donated offerings, and restored the disciple names.

Looking back on the memorials, museums, and pilgrimage route that are the history of Korean Christianity, there is no denying God's providence that has especially loved Korea. Many things were not preserved. It is a shame that many things were lost in the back alley of history. However, through preserved relics, I am forever grateful to the missionaries who passed on their faith and our faithful parents. Our tour guide said, with the goal of passing on the faith for 3 generations, it is a trend to take these kinds of trips. Our church will be a half century old. I pray that this monumental history of grace will continue through generations, and that this will be a momentous year, with 3 generations coming together, to keep the faith of diaspora church.

주일 설교 시리즈: 호세아 강해

LAFc-4

LOVE ALWAYS FINDS CHRIST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음녀의 경매가격 vs. 은혜의 가격

(호 3:1-5)

1.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며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래 구절을 참고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1절, 참고/호 2:5, 12)



2. 이스라엘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4절을 읽고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서 우리의 삶과 닮은 점은 없지요?

1) _____ (참고/엨 5:21-22, 엨 6:1, 엨 6:5)

2) _____ (참고/롬 12:1)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셨다고 말합니다. 그 가격은 얼마였나요? 우리를 구원하신 가격은 얼마였나요? (2절, 참고/눅 24:21 마 20:28, 딤후 2:14, 벰전 1:18-19)

4. 이런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함께 기도하며,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갑시다. (3절, 5절)

■ 적용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찬404/새304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찬502/새445장)

선교 소개
선교 뱅퀵

여전히 Mission to the End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베델교회의 선교 사역은 올해 2월 '미션의 날'을 시작으로 성도님들에게 베델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23곳의 선교지를 소개하고, 각 선교지를 품고 선교팀원을 모집하는 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선교 사역의 중심에는 각 선교팀의 팀장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저도 브라질 선교 팀장을 맡으면서 '과부의 마음을 훔치기가 안다'는 말처럼, 각 선교지마다 세워진 팀장님들의 귀한 섬김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교지로 출발하기 전, 약 10주간의 선교 준비 모임 기간 동안 팀장님들은 간식과 식사 준비는 물론, 목자의 마음으로 선교팀원 한 명 한 명의

영적 상태를 살피시며, 팀원들에게 사역을 배분하고 각 사역의 준비 상태를 점검하셨습니다. 또한 현지 선교사들과의 소통을 통해 선교지의 상황을 파악하고 팀원들에게 교육하며, 모든 과정을 세심하게 섬기셨습니다. 선교 현장에서도 리더로서 예측할 수 없는 여러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하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영혼들을 사랑과 책임감으로 섬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선교팀장님들의 섬김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교 뱅퀵(Banquet)'을 간단히 가지게 되었습니다. 선교 뱅퀵에서 나누어진 팀장님들의 간증을 들으며,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에게 더 큰 소망을 품게 되었고, 선교지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각 선교지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혼 구원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으로 다시 한 번 열방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다짐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교 뱅퀵을 위해 새벽부터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신 모든 선교소위원 가족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뱅퀵을 통해 얻은 교제와 격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교팀장님들께 힘이 되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금 더 큰 사명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김응진 집사



사역 소개
음향

보이지 않지만 들리는 사역



저희 음향팀 사역부는 교회의 모든 예배당 음향 시스템과 음향 전송, 그리고 음향 방송 진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당 예배뿐 아니라 여러 예배실과 수양관의 오디오 시스템을 통제/관리하며, 온라인 예배와 중계 방송까지 포함한 교회의 전 음향 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배 전, 강대상의 모든 음향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마이크와 스피커, 조명 등 기술적인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합니다. 예배

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마칠 때까지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얼반인 지역 전체에 정전이 발생하여 주일 1부와 2부 예배 사이 본당의 모든 전원이 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명도, 마이크도, 음향도 모두 멈춰버린 순간이었죠. 그때 저희 음향팀은 긴급 대응에 나서 임시 조명과 배터리 마이크로 상황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전력 없이 예배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2부 예배가 시작되기 직전, 전기 공급이 회복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장비를 한꺼번에 켜면 과부하로 손상이 생길 수 있기에, 한 대 한 대 세심히 점검하며 순서대로 전원을 복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으로 단 한 대의 장비 손상 없이 시스템이 정상화되었고, 예배는 은혜롭게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15분간의 정전은 저희에게는 긴장과 눈물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살아 계신 은혜를 깊이 체험한 순간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음향팀을 위해 응원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끔 생방송 중 잡음이나 예기치 못한 음향 차질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는 더 겸손히 배우며, 말씀과 찬양이 깨끗하게 전파되어 더 많은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음향팀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섬기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가 온전히 드러지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합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와 사랑이 큰 힘이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골 3:23)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샬롬!

이광수 집사

사역 소개
추수감사축제

베델 추수감사축제에 초대합니다

올 한해 베푸신 하나님의 크고도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며, 온 교회가 한마음과 한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축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를 통하여 우리의 일상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셨음을 고백하며, 야곱이 경험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집'을 발견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격년제로 진행되는 목장별 찬양 발표회가 준비되어 있으며, 총 9개 팀이 뜨거운 찬양과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공연 후에는 모든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는 전 교인 만찬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대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추수감사축제팀은 지난 8월부터 담당 교역자와 함께 기도으로 준비하며 세부 일정을 조율해 왔습니다. 총무, 재정, 기획 및 흥

보, 섭의, 행사 진행, 안내, 만찬 등 7개 부서가 하나 되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고 있으며, 각자 바쁜 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맡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델 전 교인이 함께하는 이 귀한 행사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동참을 통해 더욱 아름답고 은혜롭게 채워질 것입니다.

성도님의 소중한 동역을 요청드립니다
① 기도으로 함께해 주십시오-모든 준비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담당자들이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봉사로 함께해 주십시오-만찬 준비와 안내 등 현장에서 섬길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나부터 기쁨으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참여로 함께해 주십시오-온 가족이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참석하시어, 축제의 자리를 더

욱 풍성하게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④ 후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주일 코트야드 후원 부스를 통해 후원금 및 물품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큰 은혜의 열매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The Story of Bethel'을 함께 써 내려가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헌신이 모여, 올해 추수감사축제가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며 감사와 영광이 충만한 참된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조광중 집사



사역 후기
MIT 소풍

지난주 목요일, M.I.T 성도님들과 함께 게티 뮤지엄을 방문했습니다. 두 번째 방문이었지만 갈 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주는 곳이라 누구나 한 번쯤 꼭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교회 주차장에 모여 버스 3대에 70여 명이 함께하며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길을 떠났습니다. 전날 내린 비 덕분에 건물과 나무들은 먼지를 씻어내고 더욱 빛났고, 멀리 보이는 빅베어 산의 눈 덮인 모습은 마치 하늘에 떠 있는 섬 같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가을 하늘은 마음까지 시원하게 했습니다. 이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도착해 트램을 타고 올라간 뒤, 아름다운 전망을 바라보며 점심을 나누고 전시관으로 향했습니다. 조각과 장식예술, 그리고 명화들이 이어지는 공간에서 발걸음도 바빠졌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진 관람이었지만 지루할 틈 없이 눈과 마음이 풍성해졌습니다. 특히 마네의 <봄>, 모네의 <건초더미>, 르누아르의 <산책>, 반 고흐의 <아이리스> 앞에서는

예술로 물든 하루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작품 하나가 수백만 불의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에 이곳에 모인 모든 작품의 가치를 잠시 헤아려보게 되었습니다.

이층 전망대에서는 405번 프리웨이와 LA 도심, 태평양까지 한눈에 펼쳐지며 탁 트인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분수 소리를 들으며 정원을 걸으니 건축과 자연, 예술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풀 게티는 평생 모은 예술품들을 인류와 함께 나누고자 재단을 세우고 지금의 게티 뮤지엄을 완성했습니다. 또한 '예술은 인류 전체의 유산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감상해야 한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오늘도 이 아름다운 공간을 무료로 누릴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보았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믿음과 사랑, 그리고 함께 누린 은혜의 시간이 가장 귀한 유산임을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감사와 감동의 순간들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날을 위해 섬겨주신 기사님과 봉사팀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님 안에서 다음에도 행복한 동행이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홍은숙 권사



교회학교
소망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사랑'입니다.

저는 소망부에서 6년 가까이 교사로서 장애인 학생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LA에 위치하고 있는 한인교회에서 주최한 2025년 한인교회 발달장애

컨퍼런스(K-Church Disability Conference 2025)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직장 동료 그리고 우리의 이웃으로 만날 수 있는 장애인의 행동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장애인의 영혼 구원에 관한 인식 개선과 세례의 필요성, 장애 자녀와 소통하는 가정과 대화의 기술, 함께 예배하는 교회로 ASD(Autism Spectrum Disorder) 친화적 신앙 공동체 세우기, 요한복음 9장과 발달장애인의 사역, 정신 지체장애인의 구원,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와 장애인 선교 등등.. 다양한 강의 주제들이 있었고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의 간증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간증을 통하여 이들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장애인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 편하고 자연스럽게 만나고 대화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과 함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 사역을 '특수 사역'으로 오해하고, 교회 성장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애 사역은 특수한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신 복음의 본질이 됩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하여 마음에 닿은 것은 무엇보다도 베델 교회에서 장애 사역을 하는 소망부가 얼마나 중요한 사역임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경희 집사

교회학교
유년부 교사 간증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



주일학교 교사로 섬긴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처음 제가 주일학교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7학년이던 아들이 유년부 TA로 섬기게 되면서 인사를 드리러 유년부 전도사님께 찾아가셨을 때,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주일학교 교사로 함께 섬겨 주시면 어떻겠냐'고 권유하셨습니다. 부족하고 준비되지 않은 제 모습을 보며 망설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유년부 교사로서의 섬김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사로 부름받았을 때는 부족함과 두려움이 앞섰지만,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은 사랑과 믿음을 배웠습니다. 매주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제 삶의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작은 손을 모아 기도하는 아이들의 모습, 말씀 속에서 환하게 웃는 얼굴들,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선생님, 감사해요!'라는 아이들의 한마디와 작은 미소가 제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채워 주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이들을 통해 새로운 힘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주일학교를 섬기며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기 보다 '배우는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 인내와 사랑의 참된 의미를 잘 알마다 배워 갑니다.

저를 이 자리로 이끌었던 아들은 성장하면서 한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매일 아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했고, 교사 모임에서도 모든 유년부 선생님들과 함께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이 다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올해부터는 유년부 교사로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같은 유년부에서 든든한 동역자로 아들과 함께 주님께서 맡기신 이 자리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사명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고 사랑으로 품으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교사로 남고 싶습니다.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박지인 집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 주성필 목사
- 총성/훈련/BCA: 정승락 목사
-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 Joy/화평/섬김: 박성권 목사
- 사랑/QT: 조태현 목사
- 은혜/예배: 서동민 목사
- 믿음/공동체: 조동현 목사
- 운유/말씀/QTin: 배홍수 목사
- BGC 담임: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 일본어/수요예배/기도: 손용주 목사
- 예상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 예상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상채플: 이형석 목사
- 예상채플: 최요셉 인턴 전도사
-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 영어중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 한어중고등부: 이성우 목사
-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유치부: 정티나 목사
- 영아부/아기학교: 최미정 전도사
-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관해 전도사
-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 예상 워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조주은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인현미, 이미옥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방송실: 민운기, 김앤드류(인턴)
-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컨텐츠 디렉터: 최종형
- 음향: 강창위, 한 진
- 디자인: 박선경
- 웹/IT: 김정아
-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새가족 환영회

가을 햇살이 포근히 마음을 감싸는 이 계절, 그동안 베델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베델 가족이 되신 것을 축하하며, 여러분을 위한 따뜻한 만찬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인사와 미소를 나누고, 앞으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든든한 동역자들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오셔서 목회진과 교회 리더십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웃음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일 오후 4시 20분까지 오시면 담임목사님과 함께하는 '미니 데이트' 사진 촬영 시간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만찬 준비를 위해 참석 여부를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베델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게된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계속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 ▶ 일시: 11월 8일(토) 오후 5시
- ▶ 장소: 유년부실
- ▶ 문의: 이상노 집사 (714)905-6188
김진원 집사 (714)323-5795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11월)	11/9: ①부-마상오	②부-박세환	③부-박성남	④부-이민수
	11/16: ①부-김주홍	②부-김학남	③부-박재문	④부-주연
	11/23: ①부-박종민	②부-방모세	③부-박호성	④부-변은재

헵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11월)	11/8: 김종현	11/15: 김호선	11/22: 나성욱	11/29: 박관규
강단꽃(11월)	11/2: 황미동, 황성희	11/9: 이선옥, 이성애	11/16: 김인흠, 정병화	11/23: 윤주원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박현진(한의학), 간호사-윤경자 다음주 | 의사-김규연(소아과), 간호사-박수잔

선교후원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우, 김진영(김은경),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영매), 호세이(그사람), Nader(Dina), Yeshua, Reza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경(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더)
-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길예평(길진명), 이상훈
- *선교기관 | 나동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창의 집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임직을 위한 엘리사 새벽기도회** 2026년 임직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엘리사 새벽기도회를 갖습니다. 특별히 임직 대상이 되는 분들은 피택 여부에 상관없이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 새벽기도회 일시/장소: 11월 4일(화)~7일(금) 오전 5시 30분, 본당 엘리사 새벽기도회 대상: 중직자(장로, 권사, 안수집사)

◆ **한미포럼: 가을의 끝에서 찾은 행복** 한 해의 결실을 거두고 단풍이 색깔로 아름답게 물들어 가는 가을에 말씀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은혜의 여정에 모든 성도님을 초대합니다.

일시: 11월 8일 토요일 **헬시바: 0점의 가치(교전 1:26-29)**

11월 9일 주일 1-2부: **행복한 사람(신 33:29)**

주일 3부: **믿음의 결국(벧전 1:3-9)**

강사: 하근수 목사(동탄시온교회), 장학봉 목사(성안교회)

◆ **목장별 추수감사축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푸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는 추수감사축제로 'The Story of Bethel' 모든 성도님을 초대합니다! 목장별로 온 세대가 함께 준비하는 장기자랑과, 전교인 만찬 저녁 식사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축제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코트야드에서 추수감사축제 준비 부스가 준비되어 있으니 봉사와 도네이션에도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문의: 11월 23일(주일) 오후 4시, 본당, 조광종 집사 (949) 706-4168

◆ **새가족 환영회**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시고 베델가족이 된 새가족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를 갖습니다. 목회자, 교회 리더와 함께 하는 만찬과 은혜로운 교제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일시: 11월 8일(토) 오후 5시 (4시 20분부터 담임목사님과 미니데이트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장소/문의: 유년부실, 이상노 집사 (714)905-6188, 김진원 집사 (714)323-5795

◆ **다민족 연합 기도대회** 청교도의 성경적 정신 위에 세운 미국의 회복과 연합을 위하여 다민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일시/장소: 11월 2일(주일) 오후 4시, 은혜한인교회

◆ **Samaritan's Purse Shoe Box 나누기 캠페인** 사마리안 퍼스 박스는 전 세계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담은 선물 상자를 보내는 사역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셔서 각 가정의 나눔의 소중한과 기쁨을 함께 체험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10월 26일(주일)~11월 16(주일), 체육관 앞 부스에서 박스 픽업 후 제출

문의: 김정범 집사 (714)623-0919

◆ **BYM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BYM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Kainos', 'RE:STORE'라는 주제로 12월 21일(주일)~23일(화)에 각각 열립니다. 등록은 큐알코드로 해 주시면 됩니다. (12월 21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출발 예정)



〈중등부〉



〈고등부〉

중등부 장소/문의: Pali Retreat, Cindy Lee 전도사 (213)335-9049

고등부 장소/문의: Pine Summit, Hanna Kim 전도사 (909)837-7747

◆ **CIM 한어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Like Jesus 작은 예수'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가집니다. 등록은 QR 코드나 카톡방에 올라오는 신청링크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장소: 12월 21일(주일)~24일(수), Thousand Pines Christian Camp

회비: \$200(다자녀 회비: 첫째-\$200, 둘째-\$175, 셋째-\$150)

베델 교인이 아닌 친구 회비: 친구와 초청한 CIM 학생 모두 \$150

문의: 진정훈 집사 (714)318-2183, 이성우 목사 (818)294-8535



◆ **교회 청결 캠페인(No Food)** 깨끗한 환경 속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본당 건물 및 비전센터 안에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말씀을 배우고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각 교실과 채플에서는 음식을 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은 코트야드에서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 **QTin 11/12월호 판매** 11/12월호 국문 QTin과 11월호 영문 QTin 교재가 실내 카페에서 판매 중입니다.

◆ **정기 제직회** 11월 8일(토) 헬시바 기도회 후 3/4 분기 정기 제직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 **기도해 주세요.**

한미 목회자포럼이 '2026년 목회를 말하다: 전 세계 한인교회의 부흥을 위한 도전을 준비하다'라는 주제로 11월 3일(월)~9일(주일)까지 있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 故 박충영 장로님(박상준 집사의 부친, 박성은 집사의 시부)께서 10월 25일(토)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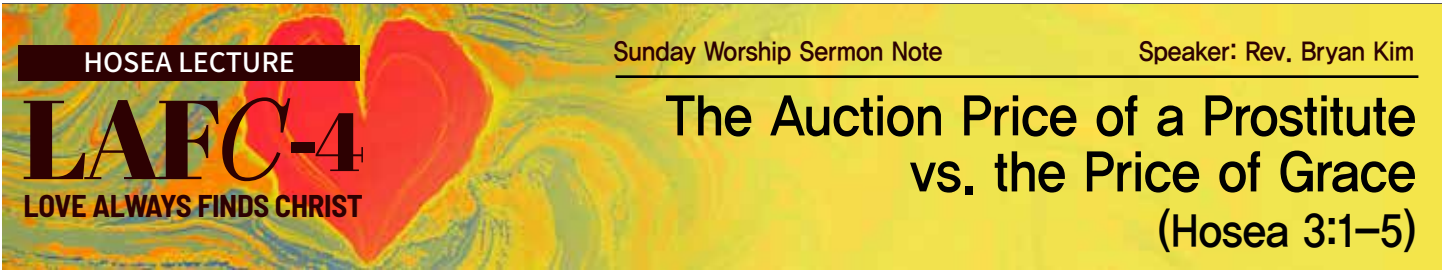
- 故 김은경 선교사님(김진영 선교사의 아내)께서 10월 26일(주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빈재인님(빈찬욱 집사의 부친, 장한나 집사의 시부)께서 10월 27일(월)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 AWANA(어와나): - Sparks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 중,고등부: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살롬채플 ■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각 교실 ■ 아기학교: 수요일(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 헬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 베델 수요일저녁예배: 오후 7시 30분, 본당 ■ 예살금요일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 주일 레위기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김경자 권사 ■ 기자: 강정훈 집사, 강은혜 집사, 권두경 집사, 김규현 집사, 김인경, 김유미 권사, 배민정 집사, 박정원 집사, 박혜성 권사, 안정선 권사, 이혜림 집사, 이소영 권사, 황수정 집사 ■ 사진 기자: 박상근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 ■ 번역: Grace Yi 전도사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1. Children of Israel turned to other gods and loved [cakes of raisins]. Share what this means by referencing the verses below.(v.1, Ref: Ho 2:5, 12)



2. Read v.4 and summarize in two points the kind of life Israelites lived, and are there any similarities with our lives?

1) _____ (Ref: Eph 5:21-22, Eph 6:1, Eph 6:5)

2) _____ (Ref: Ro 12:1)

3. Regardless, God says He bought Israel. What was the price? What was the price of our salvation? (v.2, Ref: Lu 24:21, Ma 20:28, Ti 2:14, 1Pe 1:18-19)

4. Having received this grace, how should the Israelites live? Let's pray together and move forward with a new resolution. (v.3, v.5)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